

# 일본, 태양전지 판매 83% 급증

## 2/4분기 가정용 77.3%로 전체 견인 ... 정부 보조금 지급효과

일본의 태양전지 내수 판매가 친환경 에너지 붐에 힘입어 2/4분기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.

일본 태양광발전협회 등에 따르면, 태양전지 생산기업 24사의 2009년 4-6월 내수 판매량은 8만3260kW로 전년동기대비 82.5% 급증했다.

특히, 태양전지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정용 태양전지는 77.3% 늘어난 7만6972kW로 판매 증가폭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.

태양전지의 판매 호조는 가정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정부에서 20만-25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.

그러나 태양전지 수출은 20만1372kW로 5.6%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세계시장의 침체를 반영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8/21>